

김용진 차관,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 공공기관은 추진단내에 6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분야별로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민간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협의체는 전력그립사 디지털발전소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전력설비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운용하고 발전소에 인공지능(AI), 스마트 팩토리 기술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상균 이사장, 철도안전설비 기준 용역 보고회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10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안전설비 설치 기준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일 반철도에 고속철도 수준의 안전설비 설치기준을 올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지진계측설비, 기상검지장치 등 철도안전설비 9종은 고속철도에만 적용됐다”면서 “일반철도에도 최고속도 250km/h의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계획되어 있어 철도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반세기 맞는 KDI, 50주년위원회 출범

기념사업 기획 12명 위원 위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KDI 50주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5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1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KDI는 10일 ‘KDI 50주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5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1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KDI는 오는 2021년 3월이면 개원 50주년을 맞는다. 50주년위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50년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주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사무국장을 맡는다. 김낙희 전 제일기획 대표이사, 김수현 KAIST 부총장, 민병관 보광 대표이사, 송대희 전 한국조세연

구원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임영재 KDI 부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향후 3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2021년을 기념할 연중행사를 기획하고,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비전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최정표 KDI 원장은 “KDI가 지난 50년간 고도성장과정에서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자부한다”며 “50년은 과거 경제개발시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선진국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KDI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jib@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KDI 50주년위원회 출범식에서 임영재(왼쪽부터) KDI 부원장,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민병관 보광 대표이사,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김수현 KAIST 부총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최정표 KDI 원장,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송대희 전 한국조세연구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 김낙희 전 제일기획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KDI

태양광산업협회, 송영길 의원 고문 추대 산업발전 위한 제도·정책 등 개선 기대



고문 추대식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원근)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협회 고문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4선)이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추대식에는 이원근 회장(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협회)을 비롯해 이정현 회장(JSPV), 임종화 부사장(에스에너지) 등이 참석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앞서 올해 7월 남북 에너지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경험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문 추대를 계기로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kimyj@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발탁



강성천(5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청와대는 10일 “청와대 신임 산업정책비서관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늘 오전 발령이 났다”라고 전했다.

강 비서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대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 블루밍턴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의 길로 들어선 강 비서관은 산업부와 지식경제

부, 산업부에서 산업기술개발과장과 부품소재총괄과장,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에너지지원실 원전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정책실 실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해 한미자유 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대외 통상 실무를 총괄해왔다.

원희룡 제주지사 “방풍림 벌목 통해 정전피해 반복 해소해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태풍 때마다 반복되는 정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풍림 벌목을 지시했다.

제주도에서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께부터 안덕면 사계리, 대정읍 하모리, 남원읍 신희리, 성산읍 신천리 지역 등 1148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는데 강풍에 의한 삼나무 방풍림이 쓰러져 전선이 단선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했을 때도 제주 상여동 일대에서는 전선 줄과 인접해 있는 삼나무 방풍림이 강풍으로 쓰러져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정전과 화재가 발생했다.

원 지사는 이번 정전도 강풍에 의한 삼나무 방풍림이 쓰러져 전선이 단선된 것이 원인으로 꼽



원희룡 제주지사가 상황실에서 비상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힘에 따라 “방풍림 벌목을 통해 전선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과 전선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한전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재현 기자 mahler@

SK하이닉스, 창립 35주년 맞아 새 슬로건 ‘We Do Technology’ 도입

SK하이닉스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We Do Technology’라는 슬로건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브랜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최첨단 기술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의지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회사’라는 회사 정체성과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We Do Technology’를 새 슬로건으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브랜드 관리체계는 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담은 회사 정체성과 이를 간명하게 표현한 슬로건 등으로 구성된다. 또 슬로건 문구 중 ‘Do’를 연결고리 형태로 디자인해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반도체의 역할을 형상화했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최근 사내공지를 통해 “차원이 다른 복잡해진 경영환경과 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과뿐 아니라 기업 문화, 경영시스템 등 모든 측면에서 ‘베스트 인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새 슬로건 ‘We Do Technology’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있다. 제공:SK하이닉스

클래스’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첨단기술 중심 회사라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의 힘을 결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준범 기자

www.electimes.com
문의 : 02-2168-1300

전기사랑 X 스피치대회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되새기고, 전기사랑 실천의 아이디어를 담은 제3회 전기사랑 스피치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스피치 주제 :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
- 시상내역 : 대상(1명, 장관상, 300만원), 최우수상(1명, 상장, 200만원), 우수상(2명, 상장, 100만원), 장려상(3명, 상장, 50만원)
※상기 시상 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접수종 (본선 대회 2018년 11월 예정)
<http://sp.electimes.com>

제2회 전기사랑 스피치대회

주최 전기신문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경제조합,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외